

CBS가 만든  성경 채널
알렙바이블 대본집

Ep.043

블레셋을 화나게 한 삼손

(사사기 14:16~16:3)

“흑흑흑 흑흑흑.....”

**삼손의 아내가 된 블레셋 여인이 울고 있어요!
옆에 있는 삼손도 안절부절 어찌할 바를 몰랐죠.**

**“왜 자꾸 우는 것이요?
내가 수수께끼의 정답은 알려줄 수 없다 하지 않았소.
내 아버지 어머니가 물어봐어도 나는 말해주지 않았을 거요.”**

하지만 삼손의 아내는 막무가내였어요.

**“당신은 나를 미워하는 게 틀림없어요.
그렇지 않고서야 몇 날 며칠을 이렇게 애원하는데
그깟 수수께끼 정답을 안 알려줄 수가 있어요? 흑흑흑..”**

**결국 잔치의 마지막 날, 삼손은 아내에게
정답을 알려주고 말았어요.
더 이상은 귀찮고 성가셔서 견딜 수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그날 오후, 블레셋 청년들이 삼손을 찾아왔어요.
그들은 아주 자신만만했죠.**

“삼손! 우리가 수수께끼의 정답을 알아 왔다.”

**“훗, 뭐요? 나만이 풀 수 있는 수수께끼를
당신들이 무슨 수로? 그래요! 어디 들어가 보시다. 헤헤헤”**

**“먹는 자에게서 먹을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온다고 했지?
에헴. 이 세상에 꿀보다 단 것이 어딴으며
사자보다 강한 것이 어디 있겠소?
그렇지 않소, 여러분? 필필필.”**

삼손은 깜짝 놀랐어요! 사자 몸속에서
꿀을 발견한 건 자기만 아는 일이었는데
저 블레셋 사람들이 정확히 맞혔으니깐요!
그제야 삼손은 모든 걸 눈치챌 수 있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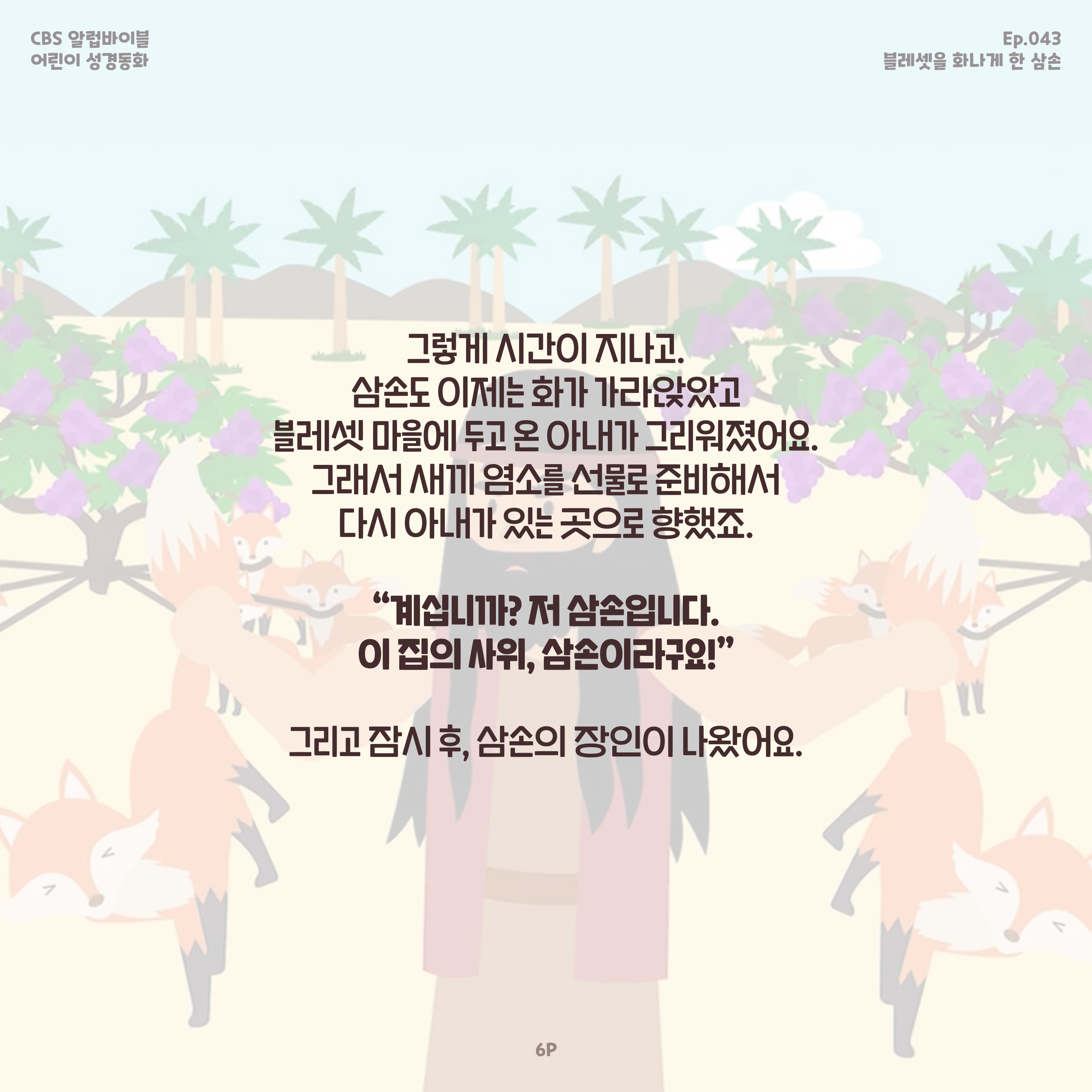
“씩씩.. 너희들이 내 아내를 협박해서
정답을 알아낸 게로구나. 치사한 녀석들..”

화가 난 삼손은 다른 블레셋 사람들의 옷을 배배앗아서
수수께끼를 맞힌 사람들에게 주었어요.

그리고 너무 화가 난 나머지, 아내를 내버려두고
혼자 고향으로 돌아와 버렸죠.

그 사실을 안 블레셋 여인의 아버지, 즉 삼손의
장인은 몹시 못마땅했어요.

**“내 귀한 딸과 결혼하게 해줬더니
이렇게 내팽개쳐버리고 사라졌단 말이나?
에잉... 이 결혼은 무효다!
내 딸을 곧장 다른 남자와 결혼시킬 것이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삼손도 이제는 화가 가라앉았고
블레셋 마을에 두고 온 아내가 그리워졌어요.
그래서 새끼 염소를 선물로 준비해서
다시 아내가 있는 곳으로 향했죠.

“네십니까? 저 삼손입니다.
이 집의 사위, 삼손이라구요!”

그리고 잠시 후, 삼손의 장인이 나왔어요.

**“더는 자네를 볼 일이 없네.
자네가 내 딸을 미워해서 여기 놓고 가지 않았는가.
이미 내 딸은 다른 남자와 결혼을 했네. 흠.”**

삼손은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뭐라고요? 아니, 나랑 한 마디 상의도 없이
결혼을 뒤집어버렸단 말입니까?”**

**불같은 성격의 삼손은 화가 머리끝까지 나고 말았어요.
이제는 스스로를 다스릴 수조차 없었죠.**

**“좋습니다. 내 돌아가지요. 하지만 똑똑히 알아두십시오.
이제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치고
블레셋을 망가뜨려도, 그건 내 탓이 아닙니다.
당신네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만든 거라구요! 에잇!”**

**집에 돌아가는 길에, 삼손은 블레셋 땅의
여우들을 몽땅 잡아버렸어요.**

**사나운 여우들도 삼손의 괴력 앞에서는
꼼짝 할 수 없었고
삼손에게 잡힌 여우의 수가 무려 300마리였어요.**

삼손은 여우를 두 마리씩 짝지어 꼬리를 묶어버렸어요.
그리고 두 꼬리 사이에 횃불을 매달았죠.

“아이고! 내 꼬리야!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네.
이게 웬 봉변이야!”

150쌍이나 되는 여우들은 저마다 뜨거워진
꼬리를 견딜 수가 없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가만히 있질 못했어요.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여우들이 가는 곳마다 불이 붙어서
블레셋 사람들의 밀밭과 포도밭에도
올리브 나무들에도 큰불이 나고 말았어요.

“아니, 도대체 누가 이런 짓을 한 거야?
내가만두나 보라!”

당연히 블레셋 사람들은 화가 났죠.
그리고 수소문 끝에 범인 삼손을 찾아낼 수 있었어요.
그들은 삼손의 손과 발을
아주 튼튼한 밧줄로 꼼꼼 묶어 버렸죠.
그럼 이제 삼손의 운명도 끝이었을까요?

그럴 리가요, 긴 머리카락을 가진 삼손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힘이 있었잖아요!

괴력의 삼손에게 그깟 밧줄은
실 한 올처럼 느껴졌어요.
삼손은 가볍게 밧줄을 끊어버리고
길에 있던 동물 배를 주워서 블레셋 사람들을
사정없이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그날 삼손에게 당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려 천 명이나 되었답니다!
이제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에게겐 ‘원수’와도 같아졌어요.

하루는 삼손이 블레셋 지역에 들어왔는데
블레셋 사람들은 이때가 기회라고 생각했죠.

**“이제 됐소! 당장 성문을 잠궈 버립니다!
삼손이 도망 못 가게 성안에 가둬놔다가
때를 봐서 단체로 공격 하는겁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블레셋 사람들의 바람은
허무하게 깨지고 말았어요.
삼손의 괴력은 보통 사람들이 상상하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었거든요.

**“뭐야? 성문을 잠갔겠다~?
이까짓 문이 무슨 대수라고. 에잇!”**

**삼손의 발길질 한 번, 주먹질 한 번에
성문과 두 기둥이 우지끈! 부서져 버렸어요!
삼손은 그 거대한 성문을 가볍게 떼어버리고는
그대로 짊어진 채 높은 산으로 향했어요.**

**그리고는 산 꼭대기 위에 문짝을 놓고 내려왔죠.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보란 듯이 말이에요.**

그 모습을 본 블레셋 사람들은 입을 다물 수 없었어요.
인간의 힘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었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삼손에 대한 미움이 더 커져서
어떻게든 삼손에게 복수를 하고 싶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삼손의 힘의
비밀을 꼭 알아내야만 했죠.